“불조 혜명이 대대 상전하길”

수진 스님 전계전강법회 봉행

12명 제자, 7일 전강
전발, 전계, 법답 수여
“끊임없는 정진” 당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허 수진 스님이 게송이 적힌 두루마리를 제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불조 혜명을 대대 상전하고 심등의 교법과 율법이 영롱하게 살아 이 땅에 부처님의 종성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전계전강사 관허 수진 스님은 12명의 전강제자에게 전발(傳鉢), 전게(傳偈), 법답(法畓)을 수여했다. 제자들은 법명이 불리자 앞으로 나가 합장을 했고, 대중들은 박수를 치며 인천의 스승이 되어 주길 간청했다. 부처님의 종지를 붙들고 교법을 심는다는 부종수교(扶宗樹敎), 환희의 법석이 열렸다.

관허 수진 스님의 전계전강법회가 4월 7일 부산 해인정사 대적광전에서 봉행됐다. 수진 스님은 “오직 부처님의 법이 대대로 이어지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계 전강 법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수진 스님의 율맥은 창수-한파-만하 승림-서응동호-동고문성을 이은 117대이며, 강맥은 백파긍선-도봉국찬-정관쾌일-학봉봉환-호월치경-효엄선기-서응동호-동고문성으로 80대이다. 전강제자는 동운 · 보명 · 인해 · 능주 · 보연 · 법열 · 학산 · 지상 · 설총 · 서담 · 선담 · 우태 스님 등 12명이다. 모두 수진 스님의 〈화엄경 청량소초〉 완역 회문 참여자로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등에서 출가해 강원과 율원, 선원 등에서 수학, 현재 동명대 교수, 사찰 주지 및 수좌로 활동하고 있다.

전강제자들은 수행정진을 약속하며 불교 전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제자들을 대표해 법열 스님은 “저희 전계전강 제자들은 위로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아래로는 스승이신 수진 스님의 제자로 수행 정진하겠다”며 “오늘 전계 전강의 인연 공덕이 씨앗이 되어 찬란한 불법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인해 스님은 은혜사(恩惠辭)를 통해 “부처님의 진리 탐구를 위한 무한한 복덕으로 알아 심등의 율법과 교법을 실천하고 전하며 스님께 받은 법등이 꺼지지 않고 영겁에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계전강을 위해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 해인사 유나 원타 스님, 봉암사 전 주지 함현 스님, 현진 스님 등이 증명법사로 참여해 축하했으며 더욱 정진해 인천의 사표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영진 스님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법의 길을 떠나라 할 때 혼자서 가라고 하셨다”며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전법 교학의 삶을 전수 제자들이 나서서 이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최인호 국회의원, 전원석 사하구의회 의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편, 법회는 △헌다 △고불문 낭독 △전계전강사 · 전계전강제자 소개 △증명법사 등단 △전발 · 전게 · 법답 증여 △법어 △입지발원문 △증명사 △은혜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법주인 수진 스님을 비롯해 증명법사 영진 스님, 원타 스님, 함현 스님, 현진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수진 스님은 1971년 동고문성스님에게 발심 출가, 1974년 동고문성스님을 은사로 수계했다. 해인사 강원 졸업, 금산사 화엄학림 졸업, 강백 운성 · 운기 등 10명의 스승으로부터 교학을 배웠다. 10년 동안 수선안거했으며 해인사 강주를 맡아 후학을 지도했다. 종단에서는 초대 교육위원, 역경위원, 교재편찬위원, 계단위원, 교선사, 고시위원,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했으며 범어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범어사 율주, 범어사 · 통도사 금강계단 3대 아사리를 담당했다. 1996년 친필 원고 10만장에 달하는 사상 초유 청량국사 화엄경 〈청량소초〉와 사기인 〈유망기〉 〈잡화기〉를 완역했으며 현재 계단위원 단일계단 존중아사리, 동명대 석좌교수 및 세계선센터 선원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내 나라 여행박람회 ‘최우수상’

불교문화사업단,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두 번째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4월 4~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화사업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코엑스가 주관한 이번 박람회서 박람회 주제에 어울리는 운영 및 적극적인 홍보로 상을 받게 됐다”고 8일 밝혔다. 문화사업단은 지난해 같은 박람회서 우수상을 받았다.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인생야행(人生夜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일몰, 석양, 별, 달 등 밤에 경험할 수 있는 여행 요소를 주제로 개최됐다. 문화사업단은 ‘사찰의 밤, 달빛 산사’라는 주제로 불 밝힌 연등과 템플스테이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아울러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전국 130여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안내를 실시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화사업단은 서울 봉은사와 연계해 스님과의 차담, 연꽃등 및 단주 만들기, 금니사경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관람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을 받았다.

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은 “이번 박람회서 템플스테이에 대한 내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달빛산사를 주제로 꾸며 여행박람회서 호평을 받은 템플스테이 부스.

청소년 마음 사찰서 영근다

불교스카우트 ‘영 리더 캠프’, 파라미타 지역 발대식

전국 각 사찰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신 증장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불교스카우트연맹(연맹장 성행)은 4월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간 경기도 화성 용주사에서 ‘Young Leader Camp’를 개최했다. 4개 사찰과 단체에서 5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가한 이번 캠프는 8명이 한 팀이 되어 매일 반장과 부반장 역할을 교대하며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체험했다.

참가자들은 각기 반기를 만들고, 반 노래와 반 환호로 단합을 뽐냈으며 심폐소생술, 마음등불을 배우며 위기대처 능력을 기르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의미를 깨달았다. 또 야영법과 매듭법, 삼각건사용법 등의 기능을 배운 참가자들은 저녁에는 캠프파이어와 장기자랑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캠프 둘째 날, ‘측정과 추적기호’ 이론 수업을 마친 참가자들은 숲 탐험하이킹에 나서, 새 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시각장애인체험(잠행), 숲 밧줄놀이 등을 했다.

용주사 박유화 학생(16)은 “오랜만에 산 속을 걸으며 활짝 핀 진달래와 봄꽃들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고, 자연에 대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청계사 안현영 어린이(13)는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니 즐거웠고, 숲 밧줄놀이는 좀 힘들고 무서웠지만 재미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명)는 4월 6일 서울 봉은사에서 선서식을 열고 문화재 답사 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날 선서식에는 서울파라미타 분회 동대사대부중, 금호여중, 삼선중, 동대새대부속고, 동대사대부속여고, 대신고, 도선고 등 7개 학교 청소년 84명과 지도자 13명이 참석했다.


화성 용주사에서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고 있는 불교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

선서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봉은사 문화재답사활동을 통해 봉은사의 연혁과 최근 환수가 결정된 일주문의 역사, 봉은사 미륵대불과 판전의 의미 등에 대해 배웠다. 또 불교 기초 교리 등도 함께 배웠다.

서울파라미타청소년협회 사무총장 현눌 스님은 “청소년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한다”며 “불교계에서의 활동을 통해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사고를 넓히고 향후 이와 관련된 인재로 커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파라미타는 이번 행사와 함께 중고등부 간부선출을 통해 대신고 김성율 학생을 고등부 회장으로 선출했다.

한편, 불교계 어린이청소년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동련은 5월 4일 부산시민공원과 부산 지역 사찰 일대에서 ‘제35회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 참가대상은 5~13세까지 어린이로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마음의 평화’, ‘나라사랑’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시제를 선정해 그리기 또는 글짓기로 참여 가능하다. (051)864-4569

노덕현 기자

봉은사, 대전 포교에도 나섰다

4월 8일 대전 여진선원 개원법회 개최

봉은사(주지 원명)는 4월 8일 대전에 위치한 여진선원에서 개원법회를 개최했다. 〈사진〉 봉은사는 3월 대전 여진선원 운영지원사찰로 선정되며 주지인 성혜 스님을 파견한 바 있다.

이날 개원법회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 봉은사 국장스님과 김상훈 신도회 회장, 이진형 여진불교미술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원법회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주지 원명 스님의 법문과 성혜 스님의 인사말씀, 내빈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개원법회서 원명 스님은 “이진형 관장이 힘들게 쌓아올린 여진선원을 일시에 내려놓기는 힘든 일이지만 부처님께서도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성불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불교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여진선원이 되어, 대전지역 포교의 중심도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봉은사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진선원 주지 성혜 스님은 “대전의 봉은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하는 도량이 되도록 힘써 정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진불교문화재단 및 여진선원은 2009년 5월 27일 설립됐다. 2011년 4월 7일 조계종에서 운영권을 인수하여, 직할교구 포교소 여진선원으로 등록됐다. 봉은사 측은 “여진선원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인 대전 유성구 대덕테크노벨리 신도시에 인접해 있어 수행 및 포교의 전진도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02)3218-4832

노덕현 기자

